

사형수 포교 50년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⑪ 사형수 권갑석

"저는 죽을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둔 사형수처럼 보이지 않았다. 자신의 지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사형수 권갑석이다.

하루는 부산변호사회 총무인 박준석 변호사가 "대구교도소에 가시는 길이 있으면 한 사형수를 만나달라"고 부탁을 해왔다. 권갑석이었다. 권 씨는 박 변호사가 무료로 변호를 맡았던 의뢰인이었다. 박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변호를 했으나 결국 권 씨에게는 사형이 선고됐다. 권 씨의 혐의는 살인이었다. 자신의 아내와 한 남자를 살해했다는 혐의였다. 사형이 확정되자 권 씨는 박 변호사에게 "변호사님 감사합니다"며 깍듯이 인사를 했다고 한다.

권 씨는 처음부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과실로 인한 사고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살인의 직접적인 동기와 증거가 부족했다. 그런 권 씨에게 사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변호를 맡았던 박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마음이 많이 무겁고 미안했다. 그런 박 변호사에게 권 씨는 오히려 고맙다고 한 것이다. 박 변호사는 그런 권 씨의 모습이 한 동안 마음속에 진하게 남아있었다. 그러던 차에 권 씨로부터 박 변호사에게 편지가 오기 시작했다. 이유가 어찌됐든 자신으로 인해 두 사람이 죽었으니 자신의 사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였다. 박 변호사는 형이 확정된 뒤 7년 동안 꼬박꼬박 보내오는 권 씨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박 변호사는 나에게 부탁을 해 온 것이다. 나보고 권 씨의 이야기를 들어봐 달라는 것이었다. 속이라도 풀리게 그의 이야기를, 진실이 무엇인지를 들어봐 달라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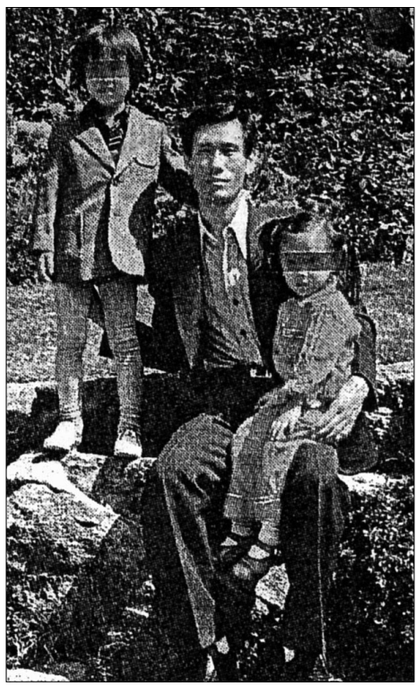
나는 신의가 있는 박 변호사의 인간성에 반해 사형수 권 씨를 만나보기로 했다. 면회실에 들어서는 권 씨는 키가 컸다. 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나 같이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 애쓰시는 스님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인사를 했다. 나는 박 변호사의 애틋한 마음을 전하면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나에게 이야기하라고 했다. 그러자 그는 "저는 죽음을 맞을 준비를 끝냈습니다. 저 때문에 사람이 죽었으니 제가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변호사님께 마음은 고마우나 더 이상 마음에 두시지 말라고 전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둔 사형수처럼 보이지 않았다. 자신의 지난 이야기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평온했다. 그리고 그는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 애 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며 먼저 일어섰다.

권 씨는 85년 6월 24일 부산에서 구속됐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인의 남편을 살해하고, 이를 눈치 챈 자신의 아내까지 살해했다는 혐의였다. 그러나 권 씨는 처음부터 고문에 의한 조작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아 끝내 사형수가 되고 말았다.

권 씨는 자신을 종교에 귀의시킨 수녀를 만나서도 아내의 죽음은 말다툼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였으며, 알고 지내던 여인의 남편 역시 살해가 아닌 교통사고였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정황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재판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 판결이었다고 아직도 말하고 있다.

아내와 지인 남편 살해 혐의
사고사 주장과 증거 불충분에도
정황만으로 사형 확정 받아
죽음에 대한 책임으로 판결 수용

1심 판결 후인 86년 세모 때, 담당판사였던 김 모 씨는 권 씨에게 편지를 보냈다. 김 판사는 편지에서 "귀하의 행위에 대해 국법에 따라 형을 선고했으나 인격을 정죄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면서 신앙을 가질 것을 권했다. 그리고 권 씨도 이에 편지를 보냈다. 가혹한 형벌로 자신을 단죄한 판사에게도 권 씨는 "고맙다. 김 판사의 따뜻한 정과 인품을 존경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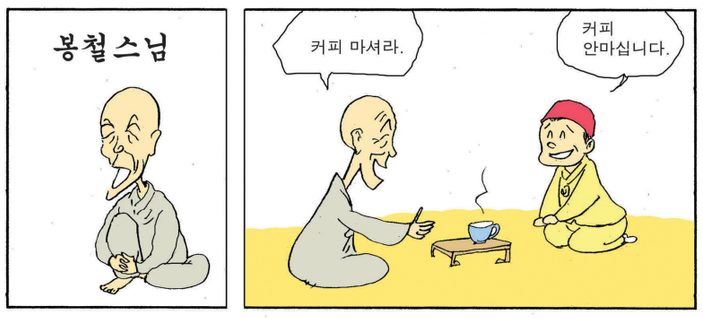


두 아이의 아빠였던 권갑석은 무죄를 주장했으나 끝내 사형수가 되어 세상을 달리했다.

권 씨는 김 판사와 7년 편지를 주고받았다. 기독교신자인 김 판사가 보낸 성서(聖書) 한 권이 계기가 되어 권 씨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당시 권 씨에게는 대학생인 맏아들과 두 딸이 있었다. 또 병환 중인 노부모도 있었다. 교사였던 여동생은 결혼도 미룬 채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다. 당시 대구에는 권 씨의 구명운동을 펼치는 '새생명회'가 있었다. 권 씨와 함께 잠시 미결로 있었던 사람들이 그 안에서 권 씨에게서 받은 감동 때문에 권 씨를 위해 탄원서를 준비했었다. 그래서 나도 그 때 판사를 만나기로 결심했었던 기억이 있다. 살려야 할 가치가 있는 생명이라면 어떻게든 살릴 수 있도록 힘쓰고 싶었다. 매일 죽음 한가운데에 서있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빛 한 줄기가 되어 주고 싶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따뜻한 빛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권 씨는 1992년 형이 집행되어 세상을 달리했다. 중생에게 '죄'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 것 같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중생 아닌가 싶다. 누구나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산다. 누구처럼 사형으로 죗값을 치러야 하는 죄도 있고, 마음으로 치러야 하는 죄도 있다.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가려내 낼 수 없는 것들이 있어 억울한 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일 것이다. 인간의 눈으로 가려낼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 모든 안타까움과 슬픔의 시작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정리=박재완 기자





이란 보살의 '밥 짓는 소리'

⑩ 봉철스님 · 성정주 보살

무척 궁금했다. 일명 욕쟁이 스님이시고 언제 어디에 어떻게 나툴지 모른다는 스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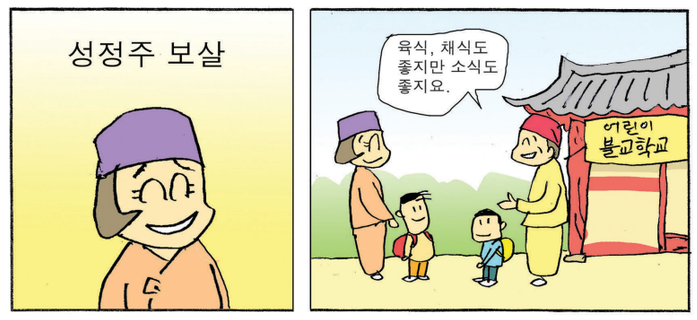
어느 절에 잠깐 들르신다는 정보(?)로 28년 전 어느 날 지체 없이 비행기를 타고가 남도 어느 절에서 처음 뵈었다. 앉아야 할지, 서야 할지 둥둥 떠있는데 저○은 왜 서 있냐고 일갈하셨다.

내가 "스님이 욕을 하신다면서요?" 하니 "야, 이○아, 아무나 보고 욕을 하냐!" 하시면서 "너는 내생기도나 해라."하고 말씀하셨다.

인연은 그렇게 시작이 되어 가끔 양백정사로 가서 스님을 찾아뵙고 지도를 받았다.

당신과 나는 지금 40세 된 아들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다닌 어린이 불교학교에서 인연이 되었지요. 부처님 법을 만난 걸 최고의 복으로 알고 신행생활을 체계 있게 했으며, 뒤지지 않는 신심이 당신을 법사로 만들었지요.

그동안 우리는 '성지순례', '기도성취' 한다고 '아내 부재중', '엄마 외출중' 팻말을 많이도 갈아 달았지요. 그랬던 당신이 '단기 출가'라는 팻말로 바꿔 달아본다지요. 계속되는 꽃샘추위에 출가라는 시간을 보내는 당신이 '오들오들 선녀'가 되지는 않을까 내심 걱정도 앞섭니다. 세속에서의 출가(出家)에 입었던 웨딩드레스를 놓아 버리고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축제라는 이름으로 산중 출가(出家)로 향한 당신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채용공고

BTN 불교TV 가 패기와 열정이 넘치는 인재를 모십니다.

1.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모집부문	주요업무	자격요건	근무지및 모집인원
PD	- 방송 프로그램제작	[자격요건] - 학력 : 대졸이상(2,3년) - 경력 : 3년 ~ 5년이상	서울 0명
마케팅	-방송광고영업 및 마케팅 -뉴스취재	[자격요건] - 학력 : 대졸이상(2,3년) - 경력 : 2년이상	서울 0명 대구 0명
뉴스제작	-방송뉴스 취재 및 제작	[자격요건] - 학력 : 대졸이상(2,3년) - 경력 : 2년이상	서울 0명

2.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3. 제출서류
- 이력서
- 자기소개서(경력중심)

4. 우대사항
-보훈 대상자 해당분야 유경험자

5. 접수방법 및 기간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우편접수 불가)
[PD] ryupd0815@btn.co.kr
[마케팅] tnsdus@btn.co.kr
[뉴스제작] rwroh@btn.co.kr
- 접수기간 : 2018년 6월 30일 까지

BTN 은 케이블TV(아날로그/디지털), 스카이라이프, IPTV 모든 플랫폼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skylife 181번 olleh HD 233번 Btv HD 305번 U+TV HD 185번 케이블TV: 지역별로 채널번호가 다르므로 BTN 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02)3270-3300으로 문의